

## 불편한 진실

### An Inconvenient Truth

“지구의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시작됐다.”

2007년 10월 25일(현지시각)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제4차 지구환경전망(GEO-4)' 보고서는 향후 세계 각국이 환경을 핵심 정책으로 끌어 올리지 않을 경우, 인류는 심대한 재앙을 자초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생명의 대멸종'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최후의 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GEO-4는 세계 환경전문가 390명과 자문단 1,000여명이 지난 20년간 현장 관찰과 통계를 중심으로 작성한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로써 지구환경과 관련된 종합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고 또,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조류의 12%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협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물이 살기 힘들면 그 재앙은 곧 인류를 덮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경보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50년 내 인류의 건강과 식량문제도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금세기 안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1.8도 상승한다는 예측도 들어 있다. 지구는 실로 온난화와 대기오염, 식량·식수 부족, 생태계 파괴 등 총체적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은 저서 '인간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Us)' 을 통해 지구상의 인류가 몽땅 사라진다는 가정에서 자연의 신비스러운 복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사라지면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들도 사라지게 되는 데, 그의 계산법에 따르면 300년이 지나면 댐들이 무너져 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들이 물에 씻겨 나가고, 3만5,000년 후엔 토양에서 납 성분이 전부 사라지며 10만년 후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인류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1천 회가 넘는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것에서 촉발되어 제작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은 풍요와 안락한 삶에 대한 인류의 욕망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증가일로로 걷고 있고 이러한 소비 행태가 부추긴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극지의 빙하를 10년을 주기로 9%씩 녹여내고 있다는 점과 이런 추세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지구상에 있는 대도시의 40%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우리는 문명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 오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닥쳐오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암묵하고

대기오염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매년 200만 명이 사망,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50년 내 인류의 건강과 식량문제도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  
 월드워치연구소는 도시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살게 되는 도시는 머지 않아 '희망의 공간' 이 될 것이라 전망.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환경부하의 저감, 건축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조속히 정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건축사조직의 대표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

있다. 책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암묵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생활방식을 바꿔야 하는 귀찮음과 불편함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지금껏 경제발전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아갈수록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불편을 참고서라도 알아둬야 한다. 환경문제는 양심의 문제이며 윤리의 문제이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결심하고 행동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제는 행동(action)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민간 환경단체인 '월드워치연구소' 는 최근 발간한 '도시의 미래' 라는 발간물에서 도시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면서 동시에 해법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전환은 비록 도시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지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살게 되는 도시는 머지 않아 '희망의 공간' 이 될 것이라는 발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발상 역시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질 때만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환경재단의 '2007년 지구환경보고서' 가 제시하는 성공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도시 주체들이 도시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며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지구 환경 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자 실천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위리여 소타마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교(UIAH)' 총장은 디자이너의 역할론에 대해 "지구의 운명은 디자이너의 손에 달렸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기업과 디자이너들은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 소외, 가난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규칙으로 승격되었고, 몇몇 대학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BK21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건축기술 사업단' 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친환경 건축설계 인증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가 조성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건축사는 물론 대한건축사협회도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환경부하의 저감, 건축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조속히 정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건축사조직의 대표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